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7호 【루계 제2453호】

주체106(2017)년 9월 9일 토요일 음력 7월 19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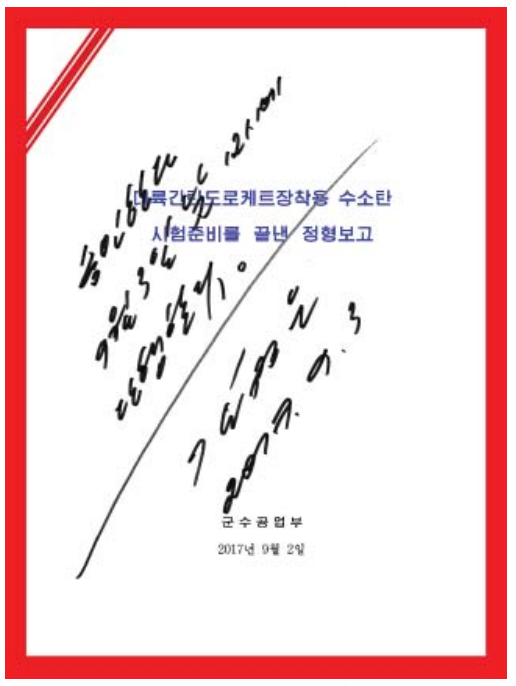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주체106(2017)년 9월 3일 오전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먼저 현 국제정치정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를 분석평가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가 진행한 핵무기병기화연구사업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였으며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또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을 견제하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부문별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집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 나라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케트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제작에 새로 연구도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시험측정결과 총폭발위력과 분렬 대융합위력비를 비롯한 핵전투부의 위력지표들과 2단열핵무기로서의 질적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였지만 지표면분출이나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의 압축기술과 분렬련쇄반응시발조종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리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였다.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위력을 높이는데서 핵심기술인 핵장약에 대한 대칭압축과 분렬기폭 및 고온핵융합점화, 뒤이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렬－융합반응들사이의 호상강화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제작에 리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결합구조와 다층복사내폭구조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복사차폐재료와 중성자차폐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였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과정들에 대한 우리 식의 해석방법과 계산프로그람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약구조 등 주체식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폭발시험과 각종 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집배치형핵폭발조종체계의 믿음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였을뿐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핵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여왔다.

천출명장을 모시여 위대한 조선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최대로 떨쳐지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공화국창건 69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9월의 맑고푸른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가 더욱 펄펄 휘날리고 강대하고 위대한 조국을 가진 인민들의 기쁨과 긍지, 자부심은 이 하늘땅에 차넘치고있다.

행성에 나라는 많아도 우리 공화국처럼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고 그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나라는 또 없다. 비록 령토는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지만 자주로 존엄높고 국력이 강대하여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 동방조선이다.

돌이켜보면 100여년전의 조선은 세계에 빛을 잃었던 《약소국》이였다. 부패무능한 조선봉건왕조 500여년을 거치면서 나라의 국력은 최대로 약해졌고 조선민족은 약소민족의 설음과 눈물을 삼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대국들 짬에 끼여있으면서 힘이 너무 약해 이리 찢기우고 저리 찢기우다 나중에는 바다건너 오랑캐무리들에게 령토와 국권을 송두리채 빼앗긴 조선이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40여년, 민족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말과 글, 이름 석자까지 빼앗긴채 갖은 학대와 굴욕을 당하며 마가을 락엽처럼, 길가의 조약돌처럼 이리 쫓기우고 저리 짓밟히는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조선민족이다.

외세의 총칼에 짓밟혀 신음하는 겨레에게, 수난과 질곡의 어둠만이 짙어가던 이 강토에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겨주신분이 바로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다.

민족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슬픔을 뼈에 새기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나라를 찾으실 굳은 결심을 안으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풍찬로숙하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려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도록 하시고 국기와 국장에도 새 조선의 넋이 맥박치게 하여주시였다.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그이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시면서 국기와 국장은 조선의 넋, 주체의 사상과 정신이 맥박치는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항일선렬들의 열렬한 애국정신을 반영하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발휘되는 인민들의 애국적열의와 불패의 위력이 생동하게 표현되여야 한다고, 인민대중의 반석같은 통일단결과 강력한 현대적인 공업과 농업발전을 이룩할 공화국의 찬란한 전망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애국가가 창작될 때에도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에게 당당한 우리 조국의 노래, 국가를 주어야 할것이라고 하신 주석님이시다. 애국가가 창작되였을 때에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란 시행부터 그 아래는 반복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노래의 이 부분을 다시한번 반복하여 부르면 선률적효과로 보아도 좋고 음악상조화도 잘 될뿐아니라 노래가 한결 장중해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줄것이라고, 인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느라면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더욱 솟구쳐오를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주석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공화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창조와 건설의 노래높이 전후 재더미만 남은 페허를 가시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웠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공화국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굳건히 지켜지고 국력을 더 높이 떨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이 가장 어려웠던 지난 세기 90년대중엽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 지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을 헤쳐가시였다. 그 길에서 미국의 대조선침략전쟁도발책동이 분쇄되고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행복과 안녕이 굳건히 수호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인민이 다시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지와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자위의 핵뢰성이 터지고 공화국은 세계에 몇안되는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전변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으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의 령마루에로 질풍노도쳐 내달리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져 해마다 새 거리들이 일떠서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놀라운 전변의 력사가 수놓아지고있으며 인민의 세기적인 꿈과 리상이 하나둘 빛나는 현실로 펼쳐져 어디서나 인민의 기쁨과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국력중에서 가장 큰 국력은 군력이라고 했다.

오늘 공화국의 군력은 온 세상이 놀라움과 부러움을 표시하듯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다.

어제날 화승총밖에 만들지 못하던 그 조선이 오늘은 핵무기에 이어 열핵무기인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내는 동방의 명실상부한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이로써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얼마전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수 있는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그 어떤 침략세력도 조선을 감히 다칠수 없게 되였다.

이 땅에서 련속 일어나고있는 특기할 대사변들은 천출위인이시며 명장중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그이께서는 가장 정확한 승리의 길, 탁월한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첫 수소탄시험과 핵무기병기화사업, 전략잠수함 탄도탄시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 등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개발할 때마다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세심한 지도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체무기개발에 자기의 온넋과 지혜를 바쳐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명철한 가르치심도 주시며 새형의 첨단무기개발사업들을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는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도 핵무기연구소를 찾으시여 자체의 힘으로 설계제작한 열핵무기인 수소탄도 몸소 보아주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도 하달하시여 세상을 깜짝 놀래우고 적대세력들을 끝없는 공포속에 몰아넣는 거대한 사변을 안아오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위업을 이으시여 공화국을 최대로 강하게 하시고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열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영웅중의 영웅이시다.

천출명장을 모시여 강대한 오늘의 조선이 있다.

절세위인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무적의 군력과 일심단결의 강력한 힘이 있어 공화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온 겨레가 통일된 삼천리강토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환희의 그날도 멀지 않았다는것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면서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더욱 억척같이 새겨진 믿음이고 확신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자위의 억센 힘에 인민의 행복이 있다

9월의 하늘가에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가 울리고있다. 《소나무》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교길에서도, 국가의 혜택속에 나라의 방방곡곡에 솟아난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의 해빛밝은 창가에서도 그리고 평양의 문수물놀이장과 함흥시의 마전해수욕장에서도 들을수 있다.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의 불밝은 창가에서도 울려오고 천지개벽된 나라의 최북단 라선과 함북도 북부지구에서도 끝없이 울려오고있다.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아이, 어른할것없이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심장으로 부르고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생활감정이 그대로 노래선률을 타고 우러나오고있다.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제재와 압박의 쇠사슬을 악랄하게 조이고있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바라는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그들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만으로는 그이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폭과 깊이에 대하여 다 이야기할수 없다.

지난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첫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선언하시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어온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숭고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 초인간적인 정력과 헌신으로 공화국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건설하신 그이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신것이다.

인민의 행복은 결코 돈이나 억대의 재부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다. 오늘 무진장한 자원을 가진 나라의 인민들도 살길을 찾아 피난길에 오르는 행성의 비참한 현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민은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을 가진 인민,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국의 인민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미국에 의하여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었으며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받아온 공화국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진리라고 할수 있다.

자위의 핵, 정의의 핵은 행복의 영원한 담보이다. 그 누구보다도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인민들의 소중한 행복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핵무력강화의 길을 걸으시였다. 인민들에게 강위력한 자위의 핵을 안겨주심으로써 존엄높은 핵보유국, 위대한 강국의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다.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후손만대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으신것이다. 이것은 령도자가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조선의 핵.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고귀한 산물이다.

위대한 령장을 모신 행복한 인민, 세계적인 핵강국의 긍지높은 인민이 부르는 고마움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온 나라에 랑랑히 메아리치고있다.

고영식

조선에는 미국식허세가 통하지 않는다

외국의 인사들 강조

주체조선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려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미국이 조작해낸 대조선제재결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고있는 미국의 핵패권은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 조선에 제재를 가하는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과연 여기에 유엔이 제창하는 그 무슨 국제적정의가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와 략탈을 합법화하는 부당한 결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정의가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은 계속될것이다.

진보적인류는 미국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울라지미르 이싸꼬브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는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조선의 로케트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미국의 정수리를 후려갈기는 무자비한 철추이다.

이제는 미국이 과연 누구와 상대하고있는가를 잘 알 때가 되였다.

조선의 핵무력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본사기자

수소탄에 비낀 조선의 힘

정말 수수께끼의 나라이다. 수십년간 그토록 가혹한 제재와 봉쇄를 받아오면서도 조금도 끄떡없는 나라,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그런 극악한 환경속에서도 날이 갈수록 젊음으로 약동하고 더더욱 기세충천하여 미래에로 내달리는 조선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것이 지금 날마다 조선충격에 사는 행성의 누구나 관심하는 문제이다.

더우기 현 미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떠들면서 극악한 제재책동과 침략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는 오늘 세상이 보란듯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단행한 조선의 담대한 행동에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는 세인이다.

지난 3일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자체의 지혜와 기술,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조선은 수소탄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과정들에 대한 자체의 해석방법과 계산프로그람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자기 식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핵탄두폭발시험과 각종 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집배치형핵폭발조종체계의 믿음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공화국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였을뿐아니라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핵은 인류의 지혜가 만들어낸 최강의 무기이다.

수소탄은 핵융합에네르기를 리용하는 핵무기의 한 형태이다.

무거운 핵이 분렬될 때 나오는 에네르기를 리용한것이 원자탄이라면 가벼운 중수소와 초중수소가 핵융합반응할 때 나오는 매우 큰 에네르기를 리용한것이 수소탄이다. 가벼운 중수소와 초중수소가 핵융합될 때에는 무거운 핵이 분렬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네르기를 방출한다.

일반적으로 수소탄은 원자탄에 비해 그 위력이 100배이상에 달한다. 그래서 가공할 핵무기, 열핵무기라고 한다.

조선의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뿐아니라 전략적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EMP공격까지 가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위력한 무기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수소탄을 손에 쥔 나라는 불과 몇개 나라밖에 안된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공화국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지난해 1월에 있은 첫 수소탄시험에서 새롭게 개발된 수소탄의 기술적제원들의 정확성을 완전히 확증하고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면 이번 시험을 통하여 조선은 그 전보다 훨씬 위력하고 경량화된 수소탄을 대륙간탄도로케트에 장착하고 사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번에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것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대사변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은 세계유일의 절대병기, 《황제폭탄》과 함께 그 운반수단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조선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였다.

지난날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저 렬강들의 회의장에 피를 뿌리며 구원을 청해서도 이룰수 없었던 민족의 자주권, 조선아 너는 왜 남보다 크고 강하지 못하더냐고 울분을 토로하던 우리 겨레가 오매불망 바라던 강국의 오랜 념원을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시였다.

미국의 날로 가중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시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험난한 길을 앞장서 헤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이시다.

핵무력건설의 총사령관,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여 핵무기병기화사업의 매 단계마다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그이께서는 수만리 화선천리길에서 무수한 낮과 밤을 보내셨다고 한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전의 맨 앞장에서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가시는 그이의 선군길을 따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나라의 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져왔다.

령도자와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함께 하며 불사조와 같이 일떠선 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보유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 수소탄보유국으로 존엄떨칠수 있은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는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아주시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초강도폭발력을 가진 주체식열핵무기를 직접 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력강화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것 아닌가.

조선을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까지 보유한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강하신분이시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시는 희세의 위인이시다.

조선의 수소탄시험성공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신문 《워싱톤포스트》는 이렇게 전하였다.

《이번에 북조선은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다.

북조선은 더이상 핵시험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소탄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낼 기술력을 가지고있음을 이번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통해 증명한것으로 봐야 한다.

만약 북조선이 저런 수소탄을 적대국의 대도시상공에 터뜨리면 핵폭풍만이 아니라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모든 전자제품과 전기설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사람이 살수 없는 지옥같은 곳으로 만들수 있다.

미행정부는 북조선문제를 군사적방법이 아니라 외교적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조선을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다칠수 없는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신것은 력사에 길이 전할 위대한 업적이다.

그분께서는 이미전에 조선의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들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칠것이라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미국은 행성을 통채로 뒤흔든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의 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똑바로 새겨보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재중동포 정동철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온 나라가 기쁨과 환희로 설레인다.

서사시

강대하다 나의 조선아

김 태 룡

머 리 시

누리를 붉게 물들여 솟는 태양
그 불덩이 가슴에 끄당겨안아
심장의 피 용암마냥 끓이며
조국이여, 그대의 아들은 노래하노라
그대가 지닌 강대한 힘을

온 세상에 내뻗치는 정의의 힘
그 힘으로 하늘에 닿은 존엄과 위상
력사의 풍운 휘여잡아 길들이는
그 슬기로 만방에 자랑높은
아, 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광과 승리의 표대로
그대는 세계의 머리우에 찬란하다
그 광채 그 눈부심에
온갖 불의의 어둠 산산이 부서지고
가닿을 미래의 언덕이 눈앞에 보여오거니

뿌듯한 긍지로 터질듯 한 이 가슴
말해다오 조국아
그대는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그대는 무엇으로 존엄높은가
그대는 무엇으로 강대한것인가

*　　*

그밤은 조용히 깊어만 갔다
여느날과 다름없이 례사로이
삼라만상은 굳잠에 묻히고
실바람만이 대기를 오락가락
고요속에 느슨해진 풀벌레소리…

굳이 여느밤과 다르다면
어디론가 숨가삐 내달리는
승용차의 발동기소리
전조등불빛에 놀란 어둠은 황급히
자리를 내여주며 사라져버리고

별들이 걸터앉아 조으는 산발을 넘어
풀내음 진하게 묻어오는 들을 지나
달리고 달리는 승용차
그안에 원수님 계신다
말없이 차창밖에 눈길을 주시며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엄숙히 내리신 시험발사단행의 친필명령
인민의 운명 민족의 운명 안으시고
서둘러 떠나신 걸음
분분초초에 불이 달린 그이의 걸음

아직은 그 밤의 끝에 무엇이 있고
그 행로의 종착점이 어디일런지
누구도 알수 없었던 그밤
거대한 사변이 움씰 태동할
력사의 아침을 향해 가고 가신 원수님

그처럼 낮 익고 정에 사무친
세상을 뒤흔들 특대사변의 주인공
《화성—14》형앞에 이르셨을 때엔
위대한 탄생을 그처럼 고대해오신
그이 심중에 일어번진 격정의 활화산이여

아, 대륙간탄도로케트!
그리도 가슴타는 숙망이였고
심장에 고패쳐 높뛴 절절한 념원
기쁘시여 대견하시여 소중하시여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힘이 없는 약자는 설음을 씹어야 하고
그 약자를 유린하는 제국주의가
걸핏하면 내드는 공갈의 병기였다
큰 나라들의 독점물로 공인된
대륙간탄도로케트—이는 대국의 대명사였다

허나 오늘은
바로 7월 4일 오늘엔
그것이 조선의것이 되였다
말로만 불러보았고
다른 나라의 하늘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것, 조선의것이 되였다

그러니 어찌 흥분에 높뛰지 않으시랴
진밤색의 묵직한 동체
앞에서도 옆에서도 보시고
멀리서도 보시고 가까이에서도 보시는
그이 열혈의 심장이

드디여 화선에 진입한 《화성》
장엄한 새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가
새벽의 잔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발사장
9초, 8초, 7초…
긴장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발사장

이렇게 길었던가
이날의 9초는 10년맞잡이
끝내 쏴아—
숨막히는 초긴장의 정적을 깨뜨리며
적황색 불길 뿜어 솟구치는 《화성—14》형
만리대공 꿰찌른 대륙간탄도로케트여

오, 가슴에 품고 심혈다해 익혀오신
원수님의 원대한 포부 크나큰 리상이
《화성》으로 날아오른것이다
우리의 존엄이 조국의 높이가
저 우주의 한끝에 나래치는것이다

품을 들여 보듬어 키워온 장한 아들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어머니
축복의 그 바래움인듯
이윽토록 원수님 보아주시였다
자신의 곁을 떠나 장쾌히 날아오른
로케트의 장한 모습을

민족사의 대업 이루신 거인의 안광에
그들먹 차오른 희열의 출렁임이여
그 출렁이는 희열에 비낀
봄날같은 그이 미소는
비행운을 따라 창공에 피여올랐다

—성공이요. 완전성공이요!
청신한 아침공기를 뒤울리며
그이 터치시는 불의 토로
아, 뚝터친 홍수마냥 터져나오는 눈물이
천만마디 감격을 대신했더라
무한한 기쁨을 다 말해주었더라

행성을 더럽히는 횡포한 제국주의
그 독기서린 광증을 태워버리는
막강한 불길이 력사에 등장했나니
39분, 단 39분만에
영원한 멸망의 태엽을 감아놓았다
흉물스런 미국의 검은 땅덩어리에

39분—
길지 않은 시간이였다
우리 아이들 교정에 흐르는
배움의 시간
한수업도 채 되지 않는…

허나 39분 그 시간에는
인민이 맞이할 래일을
승리라 이름할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
영광과 번영을 약속하는
눈부신 앞날의 해와 달이 있었다

미국에 서글픈 종말을 선고하는
력사의 준엄한 징벌이 내린 날
설쳐대는 무모한 침략자의 심장부를
가차없이 내리찍을 불의 철퇴 틀어쥔 날
우리는 부른다 《7.4혁명》이라고

이 거대한 혁명의 총사령관
그이는 김정은원수님
반만년민족사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 모든 숙망을 쾌승으로 이루신
그이는 민족의 은인 전설적영웅

생각도 깊어지누나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강토를 지켜낼 총대가 약해
수난도 불행도 많이 겪은 우리 민족
피맺힌 숙원은 강대한 힘 아니였던가

무쇠발톱 치켜든 침략자앞에
고작 화승대밖에 내댈수 없었던 민족
원시의 죽창은 수수바자마냥 연약했다
항거의 맨가슴은 피를 토해야 했고
분노의 절규는 총탄에 찢겨야 했다

힘을 찾아 구세주를 찾아
렬강의 대문도 두드려보았고
이국의 하늘아래 피도 뿌려보았건만
랭정하고 싸늘했던 세상의 눈길
목놓아 구원을 불렀어도
하늘도 땅도 귀먹은 벙어리

피절은 원한과 비극의 그 세월을 딛고
오늘은 강대성의 절정에 이른 조국
무적불패의 힘으로 작아도 큰 나라
정의의 대변자
진리의 수호자로
급상승한 지위는 세기의 령봉우에

온 세상이 신비의 나라로 극찬하는
이 땅엔 평범한 날이란 없나니
신화로 흐르고 전설로 엮어지는
위대한 세월의 조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신
김정은—우리의 장군이시여

그이는 나라도 군대도 강철로 만든 령장
천하배짱가
제일작전가
그이앞엔 허세를 부리는 제국주의도
한날 초췌한 쥐무리

다시 그날에 서보자 7월 4일에
그날은 200여년의 력사 뻐겨오는
아메리카제국의 《독립절》
하지만 그 제국의 《제씨》들 미처 알았으랴
그 《독립절》이 《공포절》로 되여
《축하》의 유리잔들이 졸지에 사라질줄은

진득한 불안의 땀에 매닥질된
미국의 몰골 눈앞에 보시는듯
불연기 타래치는 화선에서
우리의 령장은 쩌렁쩌렁
통쾌한 웃음발 날리셨어라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줍시다

호호탕탕한 그이의 말씀
미국을 통채로 지르밟으신듯
위풍당당한 강자의 근엄함이여
순결한 아침하늘가에 눈부신 태양은
그이 머리우에 빛났노라 승리의 월계관처럼

그처럼 영용하고 담대하신 존안
한번만 뵈워도 가슴가슴엔
산악같은 믿음 웅건히 들어앉고
우렁하신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세상을 줌안에 거머쥘 피가 뛰노니

그 무슨 신기를 지니셨는가
그 어떤 만능의 보검 틀어쥐셨는가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얼어붙어
미제가 전률을 토하는 주체탄
《북극성》과 《화성》
련속강타의 포성 울리시는 기적의 화신

마치 드넓게 뻗은 저 대공은
우리 조선을 위해 열려져있는듯
바다에서 땅에서 련이어
불줄기 뿜어 날아오르는 로케트들
제국주의면상 후려갈기는 거대한 폭음이여

아직도 《화성—14》형이 남긴
하얀 비행운이 보여오는듯 한 하늘
그날로부터 불과 20여일
7월의 그 하늘가에 또다시
뢰성쳐 터져올랐다 환희의 열파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오, 우주를 꽉 채우며 세상에 선언한
조선의 이 충격파
미제에게 또다시 차례진
죽음의 《선물보따리》
최종멸망의 선고장!

온 나라가 또 잠을 잊었다
광장엔 젊은이들 활개짓는 춤바다
오색찬연 불장식한 명절의 거리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 화제에는
하나같이 《화성》이 올랐다

아침이면 대륙간탄도로케트
그 비행운 보일듯싶어 하늘을 보고
밤이면 저 하늘 어디에선가
로케트불줄기 번뜩일것만 같아
한번쯤 바라보고야 잠에 든다는 인민

꽃이 뜨락에 웃는 유치원의 그림시간
아이들은 저마다 로케트를 그린다
씩씩하게 대렬지어 학교가는 학생들
소년군가처럼 들썩하게 부른다
《화성포의 노래》

《화성》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벗이 되고 친근한 이름으로 된
류다른 풍경
어이 이 땅에만 펼쳐진것이였더냐
새로운 지각변동의 시대가 열렸다
조선을 축으로 세계가 도는

생각은 깊다
힘이 없는 빈약한 정의가
애달픈 몸부림으로밖에 되지 않는 이 세계
전란과 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이민과 피난의 구슬픈 행렬이
비극의 띠처럼 칭칭 감긴 이 세계

부유한 재부가 운명을 지켜줬더냐
환상과 기대가 나라를 지켜줬더냐
국토가 침략자의 발길에 으깨여지고
민족이 순간에 불행의 진창에 내던져진
그런 나라 그런 민족 한둘이였던가

흘러간 우리 민족사가 피로 새겼고
오늘의 세계가 또한 현실로 보여주는 진리
힘이 없으면 짓밟혀 사는
쓰디쓴 노예의 울분 들이켜야 한다
힘이 약한 삶이란 곧 죽음이다

그렇다!
우리에게 그이 아니 계셨다면
죽이고 불태우고 짓이겨지는
대동란의 참화 시련의 피눈물이
어찌 지경밖의 남의 일이라하랴

오늘도 때없이 궁지높이 불러본다
우리의 《화성》
우리의 《북극성》, 우리의 주체탄들을
그러면 눈부신 그 동체우에
그이 헤쳐오신 헌신의
그 모든 낮과 밤이 다 어려오나니

오, 그것은 최강의 병기이기 전에
그이 심혈의 응결체
그이의 넋과 고행의 결정체
초인간적인 힘 불굴의 의지로
심신을 바쳐 이루신 고귀한 국보

강국의 리상 평생 품고사시며
그 길에 한평생 다 바치신 수령님들
수령님들 한생의 당부가 가슴을 쳐
낮에도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가신 길
더듬어 그 길처럼 인민의 격정도 끝없는가

한밤중에 오셨던 길
다시 아침에 되돌아 오시고
어제 보신 로케트의 거대한 동체
떨어져선 못견딜 그리움이였더냐
다시 그 다음날 보아주신 우리 원수님

위험천만한 시험장에서
조립과 기동 발사현장에 이르기까지
마치 화선의 제1선대원이신듯
한몸 내대고 제일 가까이 나서신 그이
타래치는 화염 숨막히는 불먼지를
기꺼이 기쁨의 열풍으로 호흡하신 그이

《화성—14》형 2차시험발사
우주만리로 치솟아 오른 로케트
아득한 공해상에 탄착되기까지는 47분
사람들이여, 그 47분 천만으로 쪼갠들
다 담을수 있고 헤아릴수 있으랴
절세위인의 만단로고 로심초사를

저린 가슴에 얹어지는 생각이여
참기 어려운 힘겨움과 고단함
사랑하는 인민에게조차
단 한마디도 터놓지 않으시고
묵묵히 가슴에 홀로 묻으셔야만 했던가

(5면으로 계속)

(4면에서 계속)

자신의 피와 땀
온넋과 열정 의지를 깡그리 바쳐
이 땅에 안아오신 특대경사
그처럼 모진 험로는 앞장서 걸으시고
승리의 언덕에 내세워주신것은 인민

승리의 그 언덕에서 인민이 목메여
부르고 부른 우리 원수님
헤쳐가신 준엄한 전구 그 험한 길
인민이 알가봐 그렇게 조용히 가신 길
그 길에 어린 로고가 아프게 맺혀
인민의 눈물은 그처럼 진했더라

매일 아침마다
그이의 소식 전하는 보도에
원수님 바치신 로고는 왜 없는가
누구에게라 없이 가슴 헤쳐 터뜨렸다던
격앙의 그 목소리는 이 나라의 민심

지금도 눈에 삼삼해라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뜻깊게 거행되던 3월의 그날
그이께서 《3.18혁명》이라 불러주신
력사에 길이 남을 그날의 화폭이

대견하시여 못내 기특하시여
과학자, 기술자들 얼싸안아주신 원수님
그러고도 기쁨의 무게 덜하셨는가
어서 업히라고
다시 자신의 등에 업어도 주셨나니

말해보자, 이런 령도자가 있더냐
묻노니, 수령과 전사사이에 맺어진
이런 혈연의 화폭 본적이 있다더냐
전사를 업으신 원수님은 웃으시고
원수님 등에 업힌 전사는 눈물에 젖고…

온 나라 인민을 다 등에 업으신듯
그토록 환하게 웃으신 원수님
그렇게 인민과 겨레의 운명 걸머지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불비속도 웃으며 가실 우리의 령도자

얼마나 행복한가 인민이여
이런 령도자의 슬하에 안겨산다는것이
이런 위대한 수령께
운명을 맡기고 산다는것이
이런 희세의 위인이 우리의 어버이라는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힘도
세상에서 가장 열렬한 사랑도
오직 김정은 그이만이 지니셨거니
누구냐 이 지구상에
이 힘을 당할자 이 사랑을 꺾을자

결코 원쑤들은 알수 없으리라
우리의 탄도로케트 비행거리며
그 힘의 성능은 계산할순 있어도
미국의 숨통을 으스러지게 움켜쥔
강철의 령장의 힘의 세기는

《최대의 압박》, 《추가제재》
핵전략자산을 믿고 떠벌이는
《평양석권》이며 《예방전쟁》따위들
이는 아직도 제정신을 팽개친
제국주의광신자들의 위안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겐 한갖 애처로운 단말마일뿐

보기에도 처참하다
어둑시근한 뒤골방에 똬리를 틀고앉아
《제재결의》의 쑥덕공론에 골몰하는자들
푸념과 악담으로 얼룩진 종이장
그것을매만지는것이너희들의최후선택일뿐

오산하지 말라 개꿈을 꾸지 말아
우리의 핵 우리의 탄도로케트는
협상탁에 올려놓는 흥정물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존엄

들으라, 아메리카의 광신자들이여
조선의 존엄 민족의 존엄을 지켜
반미대결전의 최전두에 서계시는
불세출의 장군
우리 원수님의 서리발선언을

—나는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설사 지구의 한끝 억만리에 있더라도
끝까지 찾아내여 씨도 없이 불마당질해
버리는것
이것이 우리의 존엄이다

반만년력사국의 존엄을 걸고
백두의 칼바람에 벼리고 벼리신
세상천하 무적의 힘을 손탁에 틀어쥐신
김정은장군
오, 그이는 조선의 힘
강대한 조선민족의 거룩한 영상

보라, 시끌벅적대는 추악한 무리들이
그이 배심과 용맹앞에 어떻게 혼쭐나는가를
미처 정신도 차릴새 없이
쏟아져내리는 무자비한 불의 벼락앞에
어떻게 공포의 새된 비명 지르는가를

107년전 8월 29일
민족사에 혈혼으로 새겨진 치욕의 날
바로 이날에 우리의 《화성—12》형은
섬나라족속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듯
통쾌하게 불줄기 뿜어 날아올랐거니

쌓이고쌓인 민족의 한 후련히 풀어준
이 쾌거 이 장거에 가슴들먹여
해방만세 터져오르던 그날의 8월처럼
이 땅의 8월은 만세로 진동했다
내 조국 만세! 우리 원수님 만만세!

이 만세는 이 눈물겨운 만세는
가장 강대한 힘에 대한 매혹의 분출
위대한 강국을 안아오신 은인에 대한
다함없는 숭배와 흠모의 웨침
8천만이 원수님께 드리는 영웅찬가!

오, 7월의 가슴치는 격정이
8월의 격동으로 이어지고
그 8월의 격동은
다시 9월의 사변으로 이어졌거니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조선이 터뜨린 주체식 열핵무기
또다시 지심을 뒤흔든 수소탄폭음이여
그 장엄한 뢰성 초강도폭발은
또 한번 원쑤들을 전률케 했다
죽음의 공포 고달픈 악몽으로

불맞은 이리떼마냥
기절초풍 갈팡질팡하는 무리들
아무리 비린청 돋구어대도
제국주의진영의 쇠잔한 울부짖음은
제명을 다 산 야수의 곡성일뿐

불러 힘줄에 피가 뻗치는 이름
수소탄 수소탄
그것은 악의 본산 미국을 검은 숯덩이마냥
가차없이 태워버릴 우리의 힘
최강의 그 힘을 떨쳐주신 우리 원수님

무슨 말로 감사드리랴
이 조선을 반제자주의 성새
불패의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으로
우뚝 세우신 원수님의 그 은공에
민족은 삼가 머리를 숙이노라

그이 계시여
내 나라의 국호는
진리와 정의로 길이 빛을 뿌리고
인류를 우롱하고 짓밟는 재앙의 왕초
미제는 기필코 비참한 운명의 순간 맞으리

핵재앙의 불구름 사라져버리고
침략자의 광란이 뽐어대는
재가루가 영영 사라질 그날 그리시는가
우리 원수님
환한 미소속에 하시던 말씀이여

—우리가 쏜 로케트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미제의 종말을 훤히 내다보시며
평화로 아름답고 눈부실 이 행성을
거연히 굽어보시는 위대한 예언자
제국주의 격멸의 최후결전 이끄시는
세계정의의 위대한 수호자

보라, 그이 품어안으신 이 땅우에
나날이 커만 가는 행복의 노래소리
구원의 등대로 인류의 마음 달려오는 땅
불의가 사멸하는 이 행성은
푸르름을 되찾아
활기의 숨 내쉬고있거니

누가 말했더냐 힘은 상대적이라고
강하다 일컫는 힘에도 한계가 있노라고
허나 조선의 힘은 절대적
한계가 없는 그 무진막강한 힘으로
이 조선 떨치시는 김정은원수님

오, 세기의 단상에 근엄하신 그이
솟구치는 줄기찬 새힘으로
끓어번지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 조선을 향도하시라
이 세계를 이끄시라

그이께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고
우리는 최후승리의 언덕에 올라
사회주의강국의 대문 열어제끼리라
70여년 분렬세월에 종지부 찍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 벅차게 맞으리라

맺 음 시

나는 지금 서있다
창공에 거세차게 펄럭이며 나붓기는
사랑하는 기발
늘 보아왔고 정이 들대로 든
람홍색기발 공화국기를 우러른다

기적의 승리를 안아온 땅에
전승의 기폭인양 날리는 기발
미제의 내리막길 시초를 열어놓은
20세기 전승의 세대들처럼
원수님 모시여 미제의 최후멸망을 선언한
우리는 21세기 전승세대가 되였나니

《미국은 황금신 미다스와
군사신 마스가 한몸뚱이 된 나라》
인류의 정복자 지배자인양
황금과 핵을 쥐고 기고만장했던 미국
허나 오늘의 미국을 보라

《강대성》에 비낀 락조의 그림자
늙다리 송장은 마지막숨을 톺고있나니
나는 똑똑히 새겨주노라
《미국은 공포신과 죽음신이
한몸뚱이 된 나라》

조선이 있는 한
이 조선을 우리 원수님 이끄시는 한
승리는 우리의것
죽음은 미국의것
조선을 이길 불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월에 불변하리라 이 진리는

부정할수 없고 거역할수 없는
력사의 이 진리를 싣고
어제가 흘렀고 오늘이 흘러왔거니
믿어의심치 않는다
이 진리로 래일이 오리라는것을

그 휘황한 래일 그려보시며
웃으시는 장군 눈부신 그이의 미소
오, 태양의 미소로 창창한 나의 조국이여
이 가슴 열어제껴 고백을 터치노라
사랑한다 강대한 나의 조국아!
그대의 앞길에 무궁한 영광만이 있으라!

각계층 군중의 목소리

감사의 큰 절을

올해는 우리 조국력사에서 참으로 격동적인 사변과 승리의 해이다. 세계 몇 안되는 나라들만 가졌다는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데 이어 여기에 장착할 수소탄까지 갖추었으니 올해를 어찌 금문자로 새겨 빛내이지 않을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못살게 굴던 미국놈들을 호되게 다불릴수 있게 되였고 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인것으로 되였다.

오늘의 이 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온 나라인민들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자주적인민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 우리 민족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핵강국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의 백승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이 조선을 길이 빛내이는 애국사업에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

평양시인민위원회 과장 김영민

조선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오늘의 이 환희와 격정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불과 얼마전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을 련거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온 나라가 기쁨에 설레이였는데 오늘은 거기에 장착할 거대한 위력의 수소탄시험에서까지 완전성공하였으니 온 행성에 떨쳐지는 조선의 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 가슴이 막 터질것만 같다.

조선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사납게 날뛰여도 주체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한 내 조국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다.

최후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지금 우리 기업소의 전체 로동자들과 기술자, 일군들은 더 기세충천, 용기백배하여 농업생산에 이바지할 주체비료를 더 꽝꽝 생산해내겠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직장장 김수철

민족의 대경사

강대한 공화국이 또다시 세상을 들었다놓은 장엄한 핵뢰성이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시위한 이 경이적인 사변이야말로 민족의 긍지이고 특기할 대경사이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리는 쾌승이다.

가슴이 후련하고 새힘이 용솟음친다.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까지 보유한 공화국은 자위의 핵보검을 틀어쥔 세계적인 핵강국이다. 적대세력들이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다놓고 《선제타격》이요, 《예방전쟁》이요 하며 우리를 위협해도 두려울것이 없다.

기어코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해보려고 무분별하게 덤벼든다면 침략의 본거지, 악의 제국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고 말겠다는것이 핵강국의 배짱이다.

미국은 정신을 바로 차리고 리성적으로 선택해야 할것이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령장을 모신 조선, 무진막강한 국력을 소유한 세계적인 핵강국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인민군 군관 리국철

남잡이가 제잡이되였다

장장 수십년세월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해마다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을 벌리고 극악무도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온 미국이 이제는 대륙간탄도로케트와 거기에 장착할수 있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공화국의 위력앞에 쩔쩔매고 있는 꼴이 참 가관이다.

머지않아 흰기를 들고 무릎을 꿇을 미국놈들의 몰골이 눈앞에 막 보이는것만 같다.

제 손으로 제 목에 올가미를 걸고 조여대는 어리석고 가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는 남잡이가 제잡이된다는 속담그대로이다.

평양시 선교구역 대흥동 김성희

장한 《핵전투원》들의 기상대로

미제와의 최후대결전에 떨쳐나선 조국과 인민에게 자랑찬 성공의 소식을 안겨준 북부핵시험장의 《핵전투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 우리 대학생들이다.

날에 날마다 이룩되는 자랑찬 핵무력강화의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의 핵무기를 완성해가는 길에 바쳐진 그들의 애국심과 결사의 각오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바로 그런 의지와 신념으로 그들은 또다시 장엄한 수소탄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할수 있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핵전투원》들의 그 신념과 의지대로 배우고 또 배워 앞날의 믿음직한 《핵전투원》으로 자신을 준비해나가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김철광

통일번영할 강대한 나의 조국이여

우리 조국이 어언 창건 69돐을 맞이하고있다.

9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공화국기가 펄럭이고 어머니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차넘치고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동방의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인가.

얼마나 안아보고싶고 더 높이 떠받들고싶은 어머니 나의 조국인가.

나의 조국.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나는 이 소중한 네글자의 부름을 다시금 포근히 가슴에 안아보며 일찌기 심장의 더운 피로 《나의 조국》을 소리높이 웨친 아버지의 인생체험을 담아 위대한 어머니 내 조국을 말하려고 한다.

* *

나의 아버지 김상오는 40여년전에 창작한 서정시 《나의 조국》과 함께 조국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시인이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아버지는 한생 작가로 살면서 많은 시들을 썼지만 서정시 《나의 조국》은 그 대표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 시는 어떻게 창작되였던가.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 뜨겁게 웨쳤던 아버지의 진정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조국에 대한 한없이 뜨겁고 절절한 사랑이였다.

아버지는 일제강점시기였던 1917년 7월 5일, 황해남도 해주에서 출생하여 나라없는 백성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사람이다.

원래 아버지는 미술과 음악에 남다른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난으로 하여 돈이 많이 드는 그 길을 택할수 없었다. 하여 자기 표현대로 《펜과 종이면 되는》 문학의 길을 택하게 되였다.

애젊은 시인이 바라본 조선은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이였다. 땅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그 땅이지만 주인은 섬나라에서 건너온 오랑캐들이였고 조선사람은 일본의 한갖 노예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에 대한 증오는 아버지를 일찍부터 반일투쟁에 나서게 하였다.

반일지하조직성원이 되여 투쟁하다가 일제경찰에 붙잡혀 류치장생활을 하고 후에는 감옥문을 나서서도 《불온분자》로 락인되여 정든 고향에서마저 살수 없게 되였다. 만주로, 일본으로 떠돌아다니며 신문배달과 막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아버지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망국노의 설음이 차고넘쳤다.

그때의 감정을 후날 아버지는 시 《나의 조국》에서 이렇게 터쳤었다.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 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러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그러던 아버지는 감격속에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다. 그것은 저절로 찾은 조국이 아니였다.

영영 잃을번하다가 다시 솟아난 조국, 그것은 수령님 총대로 찾아주신 땅이였다. 수령님 다시 소생시켜주신 인민이였다. 수령님 우뚝 세워주신 자주의 나라, 인민의 나라였다.

해방정국의 나날 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오면서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더욱 가슴깊이 새기게 되였다.

1945년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5도신문주필일군협의회를 지도해주시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는 당시 신문 《자유황해》 주필이였던 아버지도 있었다.

(아! 이분이 백두산호랑이로 이름을 날리시던 그 빨찌산 김대장이시란말인가. 이렇듯 젊으시고 이렇듯 영명하신 장군을 령도자로 모시였으니 우리 조국의 앞날은 얼마나 창창한가.)

솟구치는 감격과 환희를 억제할수 없었던 아버지는 그만 그 자리가 어떤 곳이라는것도 잊고 불쑥 일어나 그이앞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기념으로 장군님의 수표를 받고싶다고 솔직한 심장의 고백을 터놓았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애롭게 웃으시며 아버지의 수첩에 《**김일성**》이라고 활달한 필체로 태양의 존함을 새겨주시였다.

이듬해 정월초, 해주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속에서도 신문 《자유황해》에 실린 사설을 보아주시고 필자인 아버지를 또다시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필동무가 왔구만, 주필동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라고 하시며 사설을 아주 잘 썼다고, 정치적으로 옳게 분석판단하고 방향도 옳게 설정하여 잘 썼다고 과분한 평가를 주시였다.

순간 아버지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한가득 북받쳐올랐다.

너무도 분에 넘치는 평가였고 믿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개무량하여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앞으로도 좋은 글을 많이 써서 신문에 내야 하겠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우리 조국은 저 하늘의 태양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해님을 모시는 행운을 지니였다. 이 아버지는 해님의 강렬한 빛발에 한몸 깡그리 불태우며 생명이 진하는 순간까지 오직 해님만을 따르겠다!》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출중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아버지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자신과 우리 인민들의 감격과 기쁨을 담아 시 《광장》을 창작하였다.

그후 또다시 아버지가 쓴 글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잘 되였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아버지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설립된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지금의 인민경제대학 전신) 제1기생으로 공부하게 되였고 졸업후에는 중앙의 한 신문사에서 부주필사업을, 그후에는 소망대로 문단에서 창작활동을 하게 되였다.

진정 은혜로운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아버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알게 되고 삶의 참된 보람을 누리게 되였으며 수령님 찾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공화국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조국임을 심장으로 깨닫게 되였다.

목숨보다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빼앗으려고 미국놈들이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니 이 나라의 누군들 분노하지 않으랴. 아버지의 심장속에서도 조선민족의 서리발치는 분노와 복수심을 담은 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것이다》, 《증오의 불길로써》, 《집》, 《저기로!》, 서정시 《조국의 기발아래》가 련속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창작주제는 언제나 조국이였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조국을 빼앗으려는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 이 감정이 아버지의 작품들마다에 맥박쳤다.

우리 조국이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며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고 천리마의 나래를 펴 온 세상을 놀래울 때 아버지는 거창한 시대의 모습을 글과 시에 담지 못해 늘 안타까워했다. 하여 불타는 열정으로 낮에 밤을 이어가며 시 《평양이여, 축복하노라》, 가사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시초 《기양관개시초》, 가사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비롯하여 수령님 손길아래 날로 변모되는 조국을 노래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나날들은 정녕 희열과 랑만에 넘친 보람찬 나날들이였다.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은 아버지를 끝없이 흥분시켰고 창작의 나래를 한껏 펼치여주었다.

그러던 아버지는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곡절을 겪게 되였다.

1963년,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창작활동을 하여오는 아버지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모해책동으로 하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줄곧 어버이수령님께로 달렸으나 보잘것없는 일개인의 문제로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릴수 없다는 생각이 앞을 막았다.

아버지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버이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만은 변치 않으리라는 다짐을 안고 일하였다.

그러던 1977년 여름날, 아버지는 평양을 향해 달리는 렬차에 몸을 싣게 되였다.

(이젠 친지들의 기억속에서도 이 김상오의 모습이 사라져가고있을텐데 과연 무슨 일로 나를 평양으로 불러준단말인가!)

아버지를 맞이한 중앙의 일군은 가슴뜨거운 사실을 전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상오동무에 대하여 거듭 심려하시였다는데 대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는 해방직후부터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옹호지지하였으며 글도 많이 쓰고 사업도 잘하였다고, 문단에서 좋은 글을 쓰도록 도와주라고 교시하시였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 아끼시던 작가가 일부 편협한 사람들에 의하여 운명의 곡절을 겪고있는것이 가슴아프시였다.

조용히 전화기를 드시여 한일군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심려하신 교시를 알려주시고나서 수령님의 믿음을 받은 아까운 사람들이 시련과 곡절을 겪는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곧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런 다심하고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아버지는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를 여러번 찾으시였다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불민한 사람에게 다시 붓을 쥐여주시구 큰 일감을 맡겨주시였다오.》

아버지는 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격정에 겨워 고마움의 심정을 터놓군 하였다.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 자식들에게 《큰 나무밑의 작은 나무는 피해를 보지만 사람은 위인을 모셔야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군 하였다.

아버지에게는 지난날 무심히 보아오던 조국의 푸른 하늘도 류다른 감정으로 감명깊이 안겨오고 산기슭의 푸른 잔디도, 작은 내가의 한줄기 시내물도 사랑의 화폭으로 가슴을 후덥게 적셔주었다.

(아! 내가 살고 우리 인민이 사는 은혜로운 조국, 이 조국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품이고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로구나. 이 품 떠나서 나는 못살아. 정녕 못살아.)

아버지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격정은 풍만한 서정을 불러일으키며 시적인 령감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해방후부터 곡절많은 나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체험으로 간직한 인생의 참된 진리를 붓끝에 담아 가슴터지도록 웨치였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누구나 시인 김상오 하면 첫째로 꼽는 서정시 《나의 조국》은 이렇게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생의 활력을 주시고 청춘의 삶을 되찾아주신 위대한 은인들께 드리는 아버지의 순결한 마음의 송가였고 진정한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을 구가한 작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가 창작한 이 시를 몸소 읽으시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서정시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이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였다.

이 시를 창작하였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환갑이 훨씬 지났었다.

로년의 시인이 어떻게 그런 서정적이고도 격동된 시를 쓸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수기 《청춘의 심장을 안겨주신 사랑》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때 잃었던 삶을 나에게 도로 찾아주시였고 놓았던 붓을 다시 손에 쥐여주시였으며 이미 늙은 나의 육체에 젊음을 노래할수 있는 뜨거운 청춘의 심장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에 소생의 기쁨을 안은 나는 다시 청춘으로 되돌아가게 되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다시 태여나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된 아버지의 인생의 체험작, 총화작이였다.

아버지는 받아안은 은덕을 알고 그 은덕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이는 아버지가 재생의 봄을 맞은 때로부터 불과 2년동안에 400여편의 작품을 창작한 사실을 놓고서도 알수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가 훌륭한 시들을 써낼 때마다 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였으며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흔돐생일을 맞을 때에는 은정어린 생일상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림종의 시각까지도 달리는 펜을 멈추지 않았었다.

백조는 죽음을 앞두고 가장 아름다운 울음을 운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나날에 우리 자식들에게 자신이 못다하고 간 충정을 부탁하여 이런 유언을 남기였다.

하루 한시각도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오직 너희들을 위해 한생을 바치시는 수령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살라고.

1992년 아버지가 75살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버지가 쓴 시작품의 제목까지 들어가시며 아버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주시였고 자녀들의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야 하겠다고 하시며 대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를 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김상오는 재사였다고, 그가 쓴 서정시 《나의 조국》은 인민의 마음속에 조국애를 심어주고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시라고 거듭 평가해주시였으며 아버지가 창작한 시들을 많이 소개선전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대해 료해하시고 은혜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온 나라 천만자식들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우리 자식들은 오늘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의 중요직책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있다.

아버지는 **김일성**상계관인인 동시에 시인들중 몇 안되는 조국통일상수상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한생토록 받들어온 아버지의 삶은 통일애국의 길에도 바쳐졌다.

통일된 조국!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것은 삶의 희망이였다.

아버지는 붓으로 통일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장편소설 《통일이 언제 됩니까》, 장시 《서울이여 나는 너를 부른다》, 정론시 《남녘땅의 청년학생들에게》, 장편소설 《교수의 증언》, 시 《그날은 오리라》를 비롯하여 아버지가 쓴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은 100여편이나 된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2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조국은 더욱 위대하고 강대한 모습으로 만방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동방의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

우리 민족을 그처럼 못살게 굴어온 미국은 지금 《최대의 위협》, 《급박한 위협》이니 하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지르고 세인은 경탄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동방의 핵강국, 조선을 우러르고있다.

우리의 존엄, 우리의 배짱,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이 상징하듯 조선의 존엄은 우주에 치닿고 국력은 이 행성을 통채로 뒤흔들고있다. 지난 3일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는 민족사적대승리를 이룩하여 온 나라가 기쁨에 들썩이고있다.

어제날 힘이 약해 약소국의 설음을 삼키고 외세에게 국권을 송두리채 빼앗겼던 조선이 오늘은 강대한 조선으로 행성에 우뚝 솟아올랐으니 이처럼 큰 경사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반만년 민족사의 특기할 이 대사변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시고 걸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안아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위업을 이으시여 불과 몇해어간에 남들은 엄두도 못내는 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하시고 조선을 세계에 떨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

령도자가 위대하여 조국도 위대하고 령도자가 강하여 조국도 강대하다.

생전에 아버지는 우리 나라가 힘이 더 세져 미국놈들이 더는 날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군 하였다.

올해는 아버지의 생일 100돐이 되는 해이다.

아버지의 소원, 부국강병을 갈구해온 민족의 오랜 숙망이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빛나는 현실로 되고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가 소리쳐 오고있는 격동의 이 현실을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것인가.

아마도 아버지는 이렇게 웨치리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 천만년 받들리라 **김정은**원수님의 나라, 통일번영할 강대한 나의 조국이여!》라고.

나와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의 생전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 고마운 나의 조국, 위대한 어머니조국을 길이 받들어 나가는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겠다.

김 명 진
(김상오의 아들)

무모하고 어리석은 객기를 부릴수록 말로가 더욱 비참해진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성명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9월 3일에 단행한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특대사변이다.

주체조선의 수소탄시험성공으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위험이 크게 억제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된것은 세인이 격찬하여야 할 인류사적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또다시 우리의 수소탄시험성공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그 무슨 유엔《결의》에 대한 《도전》으로 걸고들면서 새로운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을 몰아오려고 발악해나서고있다.

그 앞장에서 분주탕을 피우고있는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의 추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지경이다.

벌어지고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심하고있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1. 미국은 주체조선의 수소탄보유로 달라진 상대의 지위와 무게를 진중하게 헤아려보고 더이상 대책없는 객기를 부리며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주체조선의 수소탄시험성공에 실린 지대한 의미와 엄한 경고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구태에 포로되여 제재와 압박에 집착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류례없이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후회란 언제나 때늦은 법이다.

미국은 줴쳐대고있는 《북전멸》과 같은 폭언과 저지르고있는 망동이 국익에 리롭겠는가 불리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2. 일본은 제 처지를 똑바로 알고 더이상 미국의 손발이 되여 추하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에 대한 사무치는 한을 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에 아부하며 반공화국제재소동에 앞장서 가담해온 현 일본당국의 죄행까지 철저히 계산할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성공이후 덴겁하여 드러낸 일본의 추태 역시 역겹기 그지없다.

사람들은 그것이 군사대국화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일본은 무서운 타격력과 명중효과를 가진 다종다양한 원자탄과 수소탄, 로케트를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남조선당국은 쥔것도 변변치 못한 주제에 책임지지도 못할 《강력한 군사적대응》을 줴쳐대며 푼수없이 헤덤비지 말아야 한다.

날강도 미국을 겨냥한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저먼저 아부재기를 치며 《강력한 대응》을 떠들어대는 남조선당국의 행태는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는 남조선이나 상대하자고 핵을 개발하고 수소탄까지 보유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은 핵이나 전략탄도로케트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대상할수 있게 준비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사대와 굴종의 사슬에 매여 끌려다니는 주구의 신세에 그 누구에게 《고통스러운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푼수없이 짖어대지 말아야 하며 아이들 군사놀이같은 《합동타격》따위의 초라한 대응행동으로 뭇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내지 말아야 한다.

4.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세계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졌다면 누구든 미국의 강도적론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조선이 어떻게 되여 간고한 핵개발의 길을 택하였으며 수소탄까지 보유하게 되였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공갈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핵문제란 애당초 산생되지도 않았을것이다.

세계를 핵으로 지배할 침략적야망밑에 1945년부터 오늘까지 무려 1 030여차에 걸쳐 핵시험을 감행한 미국이 저들의 핵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를 걸고드는것이야말로 불의가 정의에 도전하는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가해온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은 잘못 고른 상대에 대한 잘못 고른 선택이였다.

세계는 조선의 수소탄보유가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강권과 전횡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서 어떤 특기할 사변으로 되는가를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다시한번 세계의 량심에 미국이 판을 치는 불공정한 국제질서와 부정의가 정의를 매도하는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다.

주체106(2017)년 9월 7일
평 양

쓸개빠진 반민족적행위

공화국의 비약적인 자위적핵억제력강화에 질겁한 미국이 련일 비명을 지르며 바빠하고있다.

가관은 《화염과 분노》니, 《선제타격》이니 허세를 부리면서 《모든 군사적선택이 책상우에 놓여있다.》고 복닥소동을 벌리는 미국의 객기에 덩달아 남조선당국도 망둥어 따라 뛰는 꼴뚜기처럼 분수없는 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위한 공화국의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규탄성명》을 발표한다 부산을 피우더니 얼마전에도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게 되자 미국상전보다 더욱 놀란 표정을 지으며 《최고의 강한 응징》이니, 《완전고립》이니, 《만전의 대비태세》, 미국과 야합한 《강력한 군사적대응》까지 떠들어댔다. 이것은 반만년 민족사의 특대사변에 도전하는 쓸개빠진 반민족적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은 초불민심의 덕으로 등장한 현 남조선당국이 입으로는 《대화》와 《남북관계개선》, 《평화》를 운운했지만 실천은 《〈한〉미동맹강화》에 몰두하고 군사적대결책동에 전념하고있는데 대해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사대와 대결의 허튼 길에서 벗어나도록 충고도 주고 경고도 하였었다.

하지만 임기내에 조선반도평화의 《획기적전기》를 만들겠다고 요란스럽게 광고하던 현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의 핵무력강화조치를 계속 걸고들면서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전쟁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하다 못해 앞장서 날뛰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의 범죄적대결책동은 당국자들과 군부대결광들의 극히 위험한 동족대결망발, 전쟁폭언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집권자부터가 쩍하면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느니, 《심각한 도전》이니, 《분노》니, 《강력한 응징》이니를 떠들어대며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가 하면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인사청문회》에서 유사시 《전선을 북상시켜 북지역에서 싸울수 있게 하겠다.》는 극히 도발적인 망언을 늘어놓다못해 장관의 감투를 쓰자마자 서해열점수역과 군사분계선일대를 싸다니며 《결전의지》요, 《〈한〉미합동전력의 최고대비태세》를 고아댔다.

남조선합동참모본부의장을 비롯한 군부의 어중이떠중이들도 미국과의 련합무력시위, 《북핵미싸일》대응연습강화, 미국핵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 등이 《북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된다고 희떠운 수작을 늘어놓았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호전세력의 동족대결망발이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으로 실행되면서 정세를 최고의 극한상태로 몰아가고있는것이다.

지난 6월 남강원도 군사분계선일대에 수많은 병력을 집결시키고 그 무슨 《2017년 통일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으며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편대를 끌어들여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남조선공군의 《F—15K》전투기들과 함께 모의폭격훈련을 감행한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또한 조선남해수역에서 카나다해군과 함께 련합해상기동훈련을 벌리고 태평양상의 괌도주변해역에서 미군과의 련합잠수함훈련을 벌리다못해 미국의 알라스카에까지 날아가 다국적공군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라스카 17》에 참가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벌리는 망동을 부리였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벌어지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대결책동은 7월에도 계속되였다.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걸고들며 남조선호전세력은 미국과 함께 공화국전지역을 겨냥한 미싸일타격훈련을 벌렸으며 수많은 전투기와 전투함선을 동원하여 륙해공군합동유도탄 실탄사격과 미해병대와의 련합작전훈련을 감행하였다.

군부호전세력의 동족대결망동은 그 무슨 《예방전쟁》, 《선제타격》, 《참수작전》을 운운하며 《군사적선택》으로 동족을 위협하는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소동에 편승하여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벌려놓는것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명목상 《방어용》이라는 외피를 씌웠던 북침전쟁계획들을 종합하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상륙작전》, 《참수작전》의 동시진행과 《북붕괴》후의 《통치계획》까지 포함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전쟁연습이 무엇을 목적하고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죽음의 백조》로 불리우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B—1B》가 현 당국의 집권기간 수시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핵폭탄투하연습을 하였고 핵동력항공모함타격단과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수역에 뻗질나게 투입된 사실들은 남조선호전세력의 동족대결망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준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출범직후부터 《대화》로 포장된 대결, 《평화보장》으로 분칠한 핵침략전쟁책동에로 질주하여왔다는것을 사실자료들로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과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심중히 새겨보아야 할것이다.

미국이 쥐여준 전쟁불뭉치를 들고 미국의 핵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분수없이 돌아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가소롭고 푼수없는 대결광기는 자멸만을 초래할뿐이다.

남조선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앉을 자리, 설자리부터 바로 찾아야 할것이다.

김영범

자멸을 재촉한다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혼비백산한 남조선당국은 지금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를 부리며 멋없이 날뛰고있다.

남조선당국자는 3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매우 심각한 도전》이니, 《강력한 응징방안강구》니 하고 떠들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과 련이어 전화통화를 가지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한 공조》를 구걸하는 추태를 부렸다.

외교부와 합동참모본부, 《국회》, 여야당것들도 저마끔 나서서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을 《중대한 도발》로 걸고드는 《성명》발표놀음을 벌려놓고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떠들어대고있다. 특히 군부호전광들은 공화국의 핵시험장소를 가상한 련합타격훈련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가 하면 미국에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투입을 청탁하는 등 《〈한〉미군사적대응》조치를 애걸하면서 푼수없이 돌아치고있다.

제 죽을지 모르고 불속에 뛰여드는 미련한 부나비의 모습을 방불케 하고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아를 불문하고 모두가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의 실체와 그 지대한 파급력을 시인하고있으며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위업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데 대해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유린말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것이지 결코 눈에 차지도 않는 그 하수인들따위를 대상으로 하고있는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미국보다 더 자지러진 비명을 지르며 야단법석하고있는것이야말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꼴불견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단호한 대응》과 《타격능력과시》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는것은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도 가늠 못하고 미국의 방패막이, 대포밥으로 나서서 자멸을 재촉하는 어처구니없는 망동일뿐이다.

뒤일을 감당하지도 못할 대책없는 대결광란으로 수습불능이 되여가는 북남관계의 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에 있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와 정세추이를 똑바로 보고 엄청난 재앙을 몰아오는 부질없는 대결망동을 즉시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오현주

얼혼이 나간자들의 부질없는 객기

최근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합의하였던 《미싸일지침》을 개정해보려고 더욱 발악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1979년에 미국과 체결한 《미싸일지침》에 의해 탄도미싸일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 마음대로 늘이지 못하게 되여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그 무슨 탄두중량을 1t이상으로 늘일수 있게 미국과 《미싸일지침》을 개정하겠다고 고아대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지난 1일과 4일 미국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탄도미싸일탄두중량을 늘일수 있게 《미싸일지침》을 개정해줄것을 구걸하였으며 미국은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500kg으로 한정된 미싸일탄두중량제한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의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시설들에 중량탄두를 장착한 미싸일들을 대량적으로 발사하여 지상 및 지하시설들을 모두 초토화할수 있기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포의 균형〉을 어느 정도 갖출수 있게 되였다.》, 《미싸일탄두중량을 무제한 늘일수 있게 됨으로써 북에 대한 〈대량응징체계〉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탄두중량 2t에 달하는 전술핵무기급 〈괴물미싸일〉을 개발할것이다.》, 《북에 비한 미싸일렬세에서 벗어나 균형을 유지할수 있게 되였다.》고 광고하고있다. 그러면서 미국대통령과 일단 구두합의를 본것만큼 10월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론의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공화국의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사변적인 조치들에 얼혼이 나간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며 부질없는 객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우주를 날고 수소탄이 지구를 진동시키고있는 때에 한갖 미싸일의 탄두중량이나 늘여보겠다고 꿈지럭거리는것은 감탕속의 미꾸라지가 하늘의 룡이 되여보겠다는것만큼이나 가소로운짓이다.

미싸일《족쇄》를 풀어주어 주구들을 동족대결의 희생양으로, 북침전쟁과 동북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대포밥으로 써먹으려는것이 미국의 더러운 흉심이다. 그것도 모르고 큰 혜택이나 받은듯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의 꼴이 얼마나 가련한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제아무리 《미싸일지침》개정이요 뭐요 하며 허세를 부려보았댔자 공화국이 보유한 절대병기앞에서는 썩은 막대기나 다름없다.

남조선당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막강한 위력을 가려보지 못하고 감히 엇서보려고 하다가는 상상할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옳바른 전략적선택을 해야 한다

9월 8일은 미국이 조선반도 남쪽의 절반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72년이 되는 날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 70여년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끝없이 증대시키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강요해온 침략과 범죄의 력사이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규탄하는것처럼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암적존재로 되고있다.

원래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그 자체부터가 불법이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지난 세기 중엽에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해방을 이룩한 조선은 전패국이 아니였으며 우리 민족은 외세의 그 어떤 개입이나 도움도 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에 미군을 진주시킬데 대한 《일반명령 제1호》를 만들어냈으며 그에 따라 1945년 9월 8일 2개 사단병력 4만 5 000명을 남조선 인천항에 상륙시키고 식민지군사강점의 첫발을 떼였다. 사실상 당시 일본은 무조건항복에 따라 무장을 놓은 상태에 있었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것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화하고 나아가서 전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였다.

38° 선지역에 저주로운 분계선표말을 박은 미국은 1948년 5월에는 갖은 폭력과 협잡의 방법으로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였으며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에는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조선을 인위적으로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에게 파국적인 전쟁을 강요하고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극악무도한 침략자, 평화의 파괴자이다.

미국은 조선전쟁의 패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조선침략야망을 포기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끊임없이 격화시켜왔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강점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보》를 위한것이라고 표방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아시아를 틀어쥐여야 세계를 지배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미국은 아시아가 그 어떤 다른 렬강들의 영향하에 들어가는것을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그러자면 이 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쥐여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런데로부터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군사력강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해왔다.

조선반도정세가 항시적으로 통제불능상태에 빠져들고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는것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과 남조선강점 미군을 주력으로 하여 해마다 벌어지고있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걸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집중전개하고 주변나라들까지 작전반경안에 포함하는 《싸드》를 남조선강점 미군에 끌어들이였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은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을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고있다.

이번에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공화국은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수단을 가지게 되였다.

세계여론들은 조미대결이 거대한 구조적변화를 보이고있다고 평하고있으며 미국내에서는 《북조선의 핵보유》라는 현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날로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과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똑히 보고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있는 부당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화근인 미군을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리성심

절하고 뺨맞는 가련한 신세

최근 남조선당국이 하늘같이 믿던 미상전에게서 련속적인 랭대와 배척을 받고 극도의 허탈감에 빠져있다.

그도 그럴것이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페기준비를 지시하였던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주변국들의 사나운 눈총과 강한 경제적압력을 받으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싸드》배치를 승인한것은 미상전과의 《혈맹》을 명줄처럼 여기였기때문이다.

그런데도 미상전은 주구의 《눈물겨운 처사》를 기특하게 여길 대신 모질게도 저들의 리익을 위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페기준비를 지시한것이다.

결국 남조선당국은 뭘 주고 뺨맞는 가련한 신세가 된것이다.

《빚샐틈 없는 공조》요, 굳건한 《한미동맹》이요 하던 남조선과 미국의 《우정》관계란 바로 지시와 복종을 내용으로 하는 주종관계라는것이 다시금 여실히 드러나게 되였다.

일반적으로 나라들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것은 관세철폐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시장을 쉽게 뚫고들어가 리익을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2013년 3월에 미국이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을 강박하여 발효시킨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너무도 불평등한것이여서 남조선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미국의 의무조항이 7개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남조선이 걸머진 의무조항은 무려 55개에 달하는 이 《협정》으로 하여 남조선은 수출기업의 50%이상이 피해를 입게 되였으며 무역품종의 80%이상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였다.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라는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리익만을 추구하고 남조선경제를 미상전의 지배와 예속에 몰아넣기 위한 올가미인것이다.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하여 체결한 이 《협정》을 두고 남조선인민들이 예속적이며 굴욕적인 《제2의 을사5조약》, 《노예협정》이라고 락인하며 통분해한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그런데 이토록 불평등하기 그지없는 《협정》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니, 《공정한 관계》니 뭐니 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떠들다 못해 페기까지 거론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두고 부려대는 미국의 변덕에는 자기를 할애비처럼 섬겨대는 남조선을 더욱 옭아매여 더 많은 리윤을 뽑아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

저들의 리기적목적만 눈에 보이는 미국에게는 남조선경제가 죽든 살든, 거덜이 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이다.

상전을 하내비처럼 섬기는 식민지노복들의 사대매국행위가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극도에 달하게 하였으며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페기를 론할만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던것이다.

비극은 남조선당국이 아직도 미국에 대한 어리석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굴하고 몽매하게 《한미동맹》을 웨쳐대고있는것이다.

남들이 비웃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전의 멸시를 받는 현실조차 외면한채 남조선집권자로부터 장관, 여야정객들까지 《한미동맹》을 외워대는것을 보면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주종관계,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일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진보정당의 출현

지난 3일 남조선의 진보세력들이 《국회》회관에서 《새민중정당》창당대회를 열고 당결성을 정식 선포하였다.

대회에서는 전 통합진보당출신들이며 무소속 《국회》의원들인 김종훈을 초대 당대표로, 윤종오를 원내대표로 선출하였다.

《새민중정당》은 창당대회에서 당의 성격을 《민중의 단합에 기초한 당》, 《자주와 평등의 새시대를 여는 당》, 《초불시대정당》이라고 밝히면서 《진보정당운동의 력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진보집권을 열망하는 민중들의 등불이 되겠다.》, 《북과 남을 비롯한 온 겨레가 주인이 되는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였다.

《새민중정당》은 9월중에 진보정당인 《민중련합당》과의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에는 합당대회를 개최하며 각 지역에 각계층을 망라하는 5 000여개의 지역조직을 내오려고 하는 등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해나가려 하고있다.

초불민심을 타고 진보세력들의 조직적진출이 활발해지고있는데 다급해난 보수세력들은 《새민중정당》결성을 《옛 통합진보당의 재건》이라고 걸고들면서 벌써부터 《종북정당》으로 몰아가려는 기도를 드러내고있다.

《새민주정당》은 현재 《국회》의원이 2명밖에 안되는 군소정당이지만 내세운 강령과 목적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에서 커다란 호응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썩은 종처에 구데기 낀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잔당들이 《대한애국당》이라는것을 조작하는 광대놀음을 벌렸다. 박근혜의 턱찌끼를 얻어먹던 수천명의 극우보수떨거지들은 조원진, 허평환이라는자들을 그 무슨 《공동대표》로 앉히고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고 고아대는 추태를 부렸다.

《공동대표》로 올라앉은 조원진으로 말하면 지난 《대선》때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를 주축으로 《새누리당》을 만들고 《대통령》후보로 나섰다가 지지률이 너무 낮아 나떨어진자이다. 이자는 내부권력싸움과정에 쫓겨난 후 또다시 《진정한 보수신당》이니, 《보수의 가치》니 하며 《대한애국당》조작의 앞장에서 기승을 부려왔다. 조원진은 그 무슨 《대표수락연설》이라는데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하는 그날까지 가시밭길을 가겠다.》느니, 《좌파 〈정권〉으로부터 정의를 찾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해댔다.

허평환이라는자 역시 지난 시기 박근혜의 치마폭에 감싸여 극우보수단체인 《자유민주평화통일국민련합》의 회장을 해먹으면서 갖은 못된짓을 다해온자이다.

한마디로 이번에 세상에 삐여져나온 《대한애국당》이란 박근혜의 진때묻은 치마폭을 붙들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보려는 정신병자들의 무리,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극우보수떨거지들의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다.

썩은 종처에 구데기 낀다고 남조선의 민심도 산송장 박근혜의 몸통에서 기여나온 《박근혜구데기당》에 역겨워 침을 뱉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동족대결소동에만 눈이 뻘개 돌아치면서 민심의 적폐청산요구를 외면하고있으니 박근혜역도와 함께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쓰레기들이 머리를 쳐들고 《정당》까지 만들며 란동을 부려대고있는것이다.

매국이 《애국》을 표방하고 죄악의 무리들이 정의를 심판하려 드는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에서 초불민심의 요구가 실현되자면 아직도 멀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리영환

《조선의 정의의 행동은 세계의 평화!》

—해외동포들 반미반전투쟁을 힘차게 전개—

해외동포들속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에서는 인터네트홈페지에 《희세의 정치원로》, 《조선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지금의 전쟁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선군의 길뿐이다》 등의 글들을 특집으로 게재하였다.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에서도 홈페지에 《김정은위원장과 ICBM》, 《조선의 정의의 행동은 세계의 평화!》 등의 글들을 싣고 공화국을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높이 칭송하였다.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도 《김정은위원장, 전략군사령부 시찰》, 《미국을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조선의 담력》, 《아직은 세상사람들이 다 모르는 주체조선의 미증유의 힘》 등의 기사들을 실었다.

한편 재미동포전국련합회와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에서는 홈페지들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8.15를 통해 조국을 통일하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수정을 촉구한다》, 《광복의 자주정신으로 분단을 끝장내자》 등의 제목으로 성명, 론평, 사설들을 발표하고 남조선당국의 사대굴종과 동족대결책동을 규탄하고 온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민족통신》은 《광복 72돐, 남측이 먼저 〈평화원년〉 선언하라》, 《제3세계의 눈으로 문재인 〈정권〉의 리정표를 파헤친다》, 《평양시민 김련희의 호소, 남북해외동포들을 울리다》 등의 글들을 싣고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과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글들을 내였다.

한편 해외동포들은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전반미투쟁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에서는 지난 8월 9일 워싱톤DC와 뉴욕, 로스안젤스에서 《노두돌》을 비롯한 각계층 재미동포단체들, 미국의 반전평화운동단체들과 련대하여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발언과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도발책동을 반대규탄하는 집회와 시위투쟁을 조직진행하였다.

특히 트럼프의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전개된 재미동포들의 온라인서명운동에는 많은 동포들과 미국인들이 호응해나서면서 시작한지 3일만에 9만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긴급련대시위투쟁으로 계속 확대되였다.

8월 14일에는 워싱톤DC 백악관앞과 뉴욕 유엔본부청사앞, 로스안젤스 웨스톤지하철도역앞에서 재미동포들이 미국인들과 합세하여 력대 최대규모의 반전시위투쟁을 벌렸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성명,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쟁연습 중지하고 북조선과 대화하라!》, 《유엔은 대조선제재를 당장 중단하라!》, 《조선전쟁을 끝장내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합창하면서 거리를 행진하였다. 일부 미국인들은 공화국기를 흔들며 기세를 올리였다.

8월 23일과 25일에도 재미동포들은 보스톤과 백악관앞에서 트럼프의 전쟁망발과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며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들을 열고 《트럼프는 대북공격위협을 중단하라》, 《북미평화협정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행진을 벌렸다.

본사기자

해외동포사회에서 고조되고있는 반미반전기운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